梅 元曲

濁世清蓮億萬梅
寒風姿更翠
連天雪雨神佛淚
盼梅歸

대법은 좋다

法輪大法(파룬따파)는 좋아
법광이 대궁을 비추네
정법의 홍세(洪勢) 지나고 나면
비로소 끝없이 묘함을 알리라

法輪大法好
漸入世人道
眾生切莫急
神佛已在笑

二零零二年四月二十五日

포위 토벌

천지를 뒤엎을 듯 요괴인간 사악하니
세상 속이는 거짓말 음산한 바람 같구나
대법제자들 진상을 알리나니
정념 법력으로 요귀 소굴 때려 부수네

2003년 1월 23일

圍剿

天翻地覆人妖邪
欺世大謊陰風切
大法眾徒講真相
正念法力搗妖穴

二零零三年一月二十三日

法輪大法(파룬따파)는 좋아
점차 세인의 도(世人道)로 들어가네
중생들아 조급해 말라
신불은 이미 웃고 있도다

2002년 4월 25일

鐘樓

洪聲震法界
法音傳十方

二零零二年五月五日

신위(神威)

먼지 걷히고 안개 흩어져 날씨 점차 맑아지니
세인은 미혹에서 깨어나 놀란 눈으로 보는도다
대법의 홍세(洪勢) 인간세상에 넘치나니
신불이 세상에서 행함을 다시 보는구나

2002년 12월 28일
임오년 11월 25일

神威

塵消霧散氣漸清
世人迷醒眼中驚
大法洪勢漫人世
再看神佛世上行

二零零二年十二月廿八日

壬午年十一月廿五日

종루(鐘樓)

크나큰 소리는 법계를 진동하고
법음은 시방(十方)에 전해지노라

2002년 5월 5일

鼓樓

重錘之下知精進
法鼓敲醒迷中人

二零零二年五月五日

갚아라

큰 문 열어 법 전한 지 십년이거늘
들어오지 못한 중생 얼마인가
세간에 미혹되어 근본을 잊으니
광풍이 일 때 따라서 나빠지누나

2002년 12월 12일

還吧

十年傳法大門開
多少眾生進不來
迷在世間忘了本
狂風起時隨著壞

二零零二年十二月十二日

고루(鼓樓)

큰 북채로 북 울리니 정진해야 함을 알지니라
법고(法鼓)는 미혹속 사람 깨어나게 하나니라

2002년 5월 5일

佛法無邊

香爐盡收亂法鬼
寶鼎熔化不法神

二零零二年五月五日

그물을 당기다

포악이 언제까지 미쳐 날뛸 거냐
가을바람 이미 서늘하거늘
썩은귀신 심지와 간담이 오싹하리니
말일에는 절망만 보게 되리라

2002년 9월 14일

綱在收

暴惡幾時狂
秋風已見涼
爛鬼心膽寒
末日看絶望

二零零二年九月十四日

불법은 끝없어라

향로는 법을 교란하는 귀신 모조리 잡아들이고
보정(寶鼎)은 법에 어긋난 신을 녹여버리네

2002년 5월 5일

入無生之門

騎虎難下虎
人要與神賭
惡者事幹絕
堵死自生路

二零零二年五月十三日

누가 미혹 되었는가

미세하고 미세한 한 알의 먼지
중생을 만들어 흙 속에 묻은 것이네
미혹 중의 세인은 법 얻을 수 있으나
어리석게 날뛰는 자 도리어 세상 밖에 있네

2002년 9월 5일

誰迷

細細微微一塵埃
造化眾生土中埋
迷中世人能得法
愚狂反在塵世外

二零零二年九月五日

무생지문(無生之門)에 들다

호랑이를 타고 달리다 내리지도 못하나니
사람이 신과 내기를 하려 하네
악한 자 나쁜 짓을 할대로 다 하여
스스로 살길을 막아버리는구나

2002년 5월 13일

如來

帶著如意真理來
灑灑脫脫走四海

청성(淸醒)

대법제자는 눈물을 거두어라
사탄 마귀 전부 괴멸되리니
진상 알리고 정념을 발하여
거짓말 폭로하고 썩은귀신 제거하세

2002년 9월 1일

清醒

大法徒　　抹去淚
撒旦魔　　全崩潰
講真相　　發正念
揭謊言　　清爛鬼

二零零二年九月一日

여래(如來)

여의진리(如意真理)를 지니고 와
소탈하게 온 천하를 거니네

法理撒遍世間道
滿載眾生法船開

二零零二年五月十三日

빨리 알려라

대법제자 진상을 알리려고
입속의 예리한 검 일제히 뿜어내네
썩은귀신의 거짓말을 폭로하나니
다그쳐 구도하고 빨리 알리세

2002년 8월 21일

快講

大法徒講真相
口中利劍齊放
揭穿爛鬼謊言
抓緊救度快講

二零零二年八月二十一日

법리를 세간에 널리 뿌려
중생 가득 실은 법선 띄우네

2002년 5월 13일

正念正行

大覺不畏苦
意志金剛鑄
生死無執著
坦蕩正法路

二零零二年五月二十九日

두려워 떨게 하다

신필(神筆)은 요괴인간 떨게 하고
쾌도(快刀)는 썩은귀신 없애노라
낡은 세력 법을 공경치 않으니
붓 휘둘러 사나운 파도 멸하노라

2002년 7월 28일

震懾

神筆震人妖
快刀爛鬼消
舊勢不敬法
揮毫滅狂濤

二零零二年七月二十八日

정념정행(正念正行)

대각자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나니
의지는 금강으로 만들었구나
생사에 집착이 없나니
정법의 길은 탄탄하여라

2002년 5월 29일

神路難

悠悠萬世緣
大法一線牽
難中煉金體
何故步姍姍

二零零二年五月三十日

하늘이 다시 맑다

하늘은 어둑어둑 땅은 컴컴한데
신뢰(神雷)가 울리자 뿌연 먼지 흩날리네
난법하는 썩은귀신 쓸어버리거니
자비심 적다하지 말지어다

2002년 6월 16일
미국 중부법회에 보냄

天又清

天昏昏地暗暗
神雷炸陰霾散
橫掃亂法爛鬼
別說慈悲心淡

二零零二年六月十六日

寫給美國中部法會

신의 길은 어렵나니

유유한 만세의 인연은
대법이 한 줄로 이끈 것이네
난(難) 중에서 금체(金體)를 연마하거늘
어찌하여 발걸음이 한가로운가

2002년 5월 30일

正神

正念正行
精進不停
除亂法鬼
善待眾生

二零零二年五月三十日

정신(正神)

정념정행(正念正行)으로
정진하며 멈추지 않노라
법을 어지럽히는 귀신 없애고
중생을 선하게 대하노라

2002년 5월 30일